

경쟁의 역사와 새로운 길

김호정 음악 담당 기자

국제 콩쿠르와 한국 음악가들

성과

참가자의 증가
입상자의 증가

원인

두 개의 기관
국가와 사회의 지원
한국의 독특한 환경
공연 기회와의 연관성

비판적 시각

경쟁의 과열
음악적 완성도와 연관성

변화

콩쿠르의 디플레이션
다른 길 찾기

결론

제3세대의 탄생

통어보는
20
년
타

모스크바 두會議代表 과견문제

이시「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보통총회(WHO)
의 「국제관계」 「세미나」를
비롯하여, 重要地區에서 열
리는 4개의國際會議에 학
회로서 方針을「결정하며」 「전
미스트」 「피아이크로스키」 「자
비」 요청하며 「勞務의 供給
증진 經濟利便」 소련의 「사
이코프스키」, 일본 「關廣大官

力計인 것으로 보아 지고 있다.

歐府는 이 때에 初年 第五
번 外交自清을 통해 中國國
家의 대한 關係外交를 다룬
한편서 北條外 外交關係를
담은 國家의 의지 光緒十四
五年의 外交關係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日本書」
原則에서 일본정 變動이 있
다. 政府는 앞으로는 對日
수교가 外交關係를 맺으리

此種情形，實由於我國之經濟，在過去數十年中，雖經種種變遷，但其基本結構，仍舊維持在封建社會之狀態。其特點為：土地集中於少數地主手中，農民受地租之剝削，生產力低下，交通不便，市場狹窄，金融枯竭，技術落後，教育普及程度低，社會秩序混亂，政治腐敗，對外開放程度有限，缺乏現代化之工業與商業基礎。此種經濟結構，自然導致社會之貧富不均，民不聊生，社會矛盾激化，最終引發了此次革命。



이 참가하는 문제의 대하
서로「好意的인關係」를 합
필요로 한다고 있다。

한정여, 출어하면 보지
않는 어종도, 부속어 및
부속어(附屬)어

그리고 이북한 政府도
고한 정복은 어렵지 않
다. 北境線의 守備로
이하는 것을 待하여는
때 오히려 그의 短處에
對 北境의 防禦를 弱
기화해 政府는 守備兵
을 減縮하고 또 一必
然의 結果로 外交關係에서
不利의 地位에 있을
것이다. 結果를 보아
그 때 防務를 유지하는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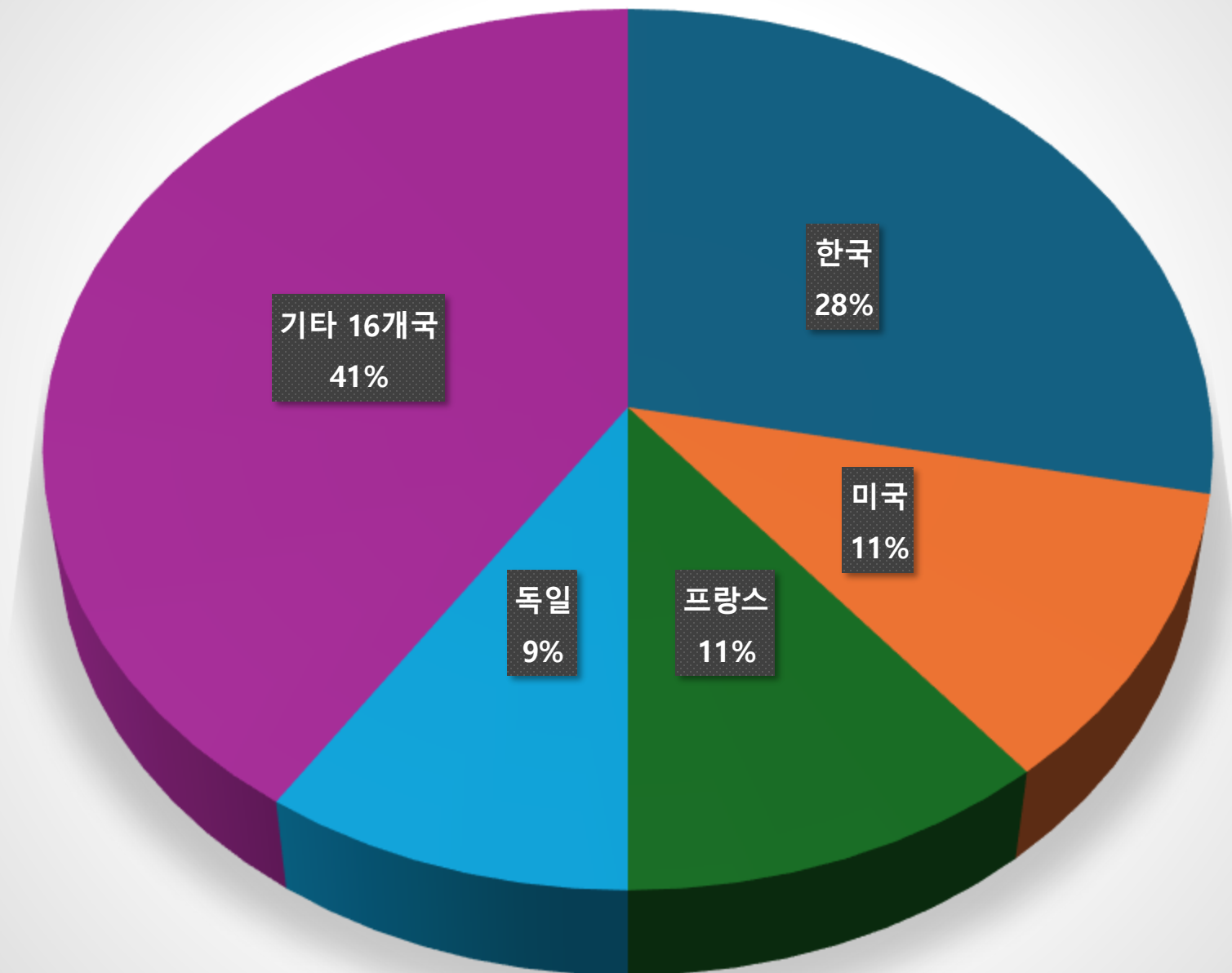
「默示承宣」

原子力、



當時，「福安」號已
二、三年，一號公
學博士，曾任教於
生於學費，且頗
利便，如左：

2023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



1957~2017년

총 125개 국제 대회 중 96개에 한국인 입상
96개 대회에서 총 148회 우승

2021~2023년

총 우승자 164명 중 29명(17%)

우승의 뚜렷한 가속화

1970년대: 2명

1980년대: 3명

1990년대: 13명

2000년대: 50명

2010~2017년: 80명

두 기관



KTV

992





2022년
우승자 36명 중
16명이 한국인
44%

차이콥스키
콩쿠르
결선 진출자

2019년

2023년

15명

미국

4명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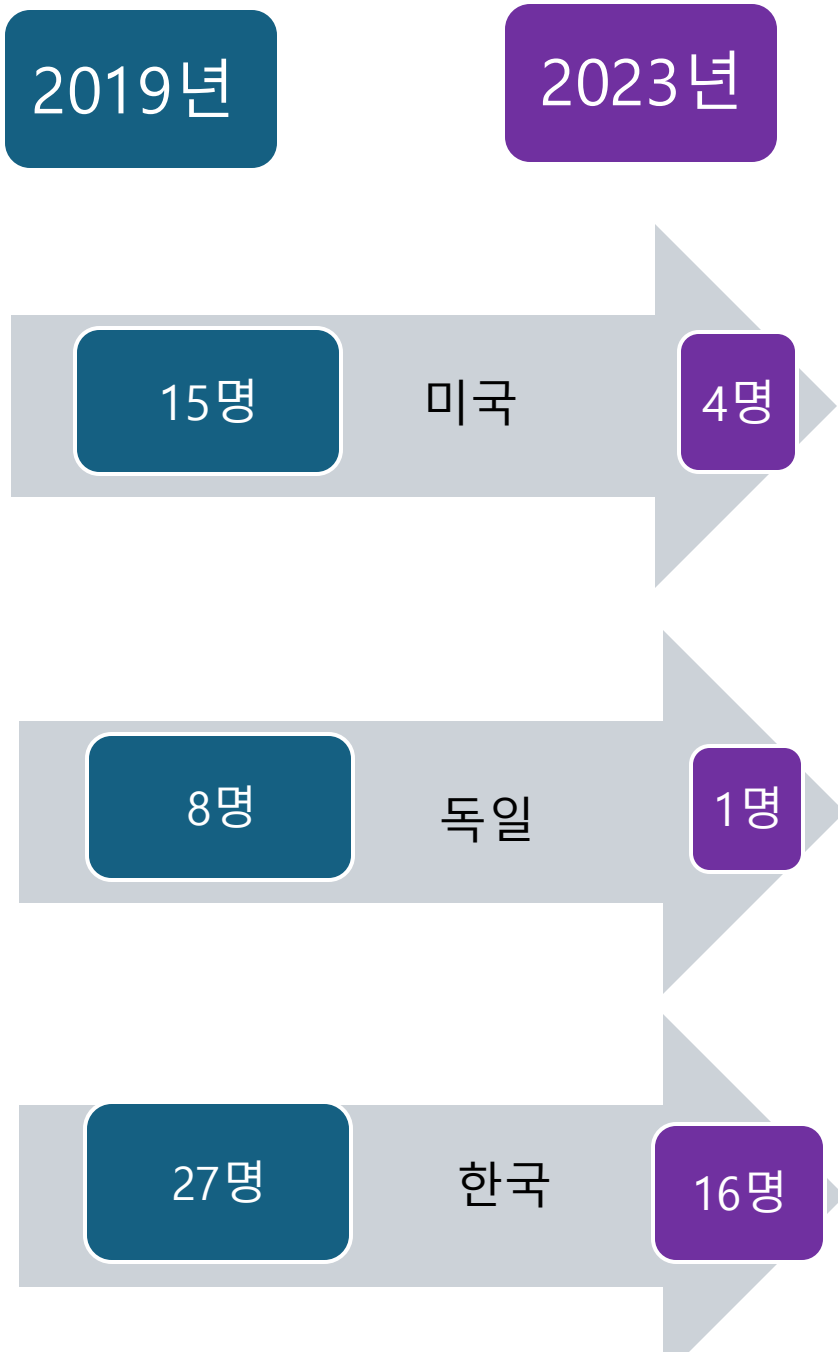
독일

1명

27명

한국

16명





포토뉴스 · 4주



vr.com · 포토뉴스 · 2024.09.18.

콩쿠르 우승...18년만에 성악 브

콩쿠르 인플레이션

함부르크 필하모닉엔 8명 ... 세계 오케스트라 빛내는

콩쿠르 우승 넘어 연주자 활약
악단 전체 이끄는 '악장' 맡기도
오보에 등 관악기 파트서도 두각
"한국 연주자 적극성 맞물린 결과"

올해 한국에서 10여 개의 해외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한다. 가히 '오케스트라 내한'의 해다. 키릴 페트렌코(베를린 필), 구스타보 두다멜(LA필), 다니엘 하딩(산타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등 함께 내한하는 스타 지휘자가 화려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은 악단들의 곳곳에 포진한 한국인 단원들의 모습일 것이다.

한국인 연주자들이 국제 대회 입상을 넘어 해외 오케스트라에 안착하고 있다. 국제 콩쿠르에서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세계 곳곳 오케스트라에 진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10월 내한하는 북독일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으로 한여진(23)을 만날 수 있다. 한여진은 2023년 이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오디션을 치러 합격했다. 만 14세에 한국 예술종합학교에 최연소 합격해 유명해진 플루티스트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는 한여진에 앞선 한국인 단원들이 있었다. 2011년 입단한 제1 바이올린 단원 전하림과 제2 바이올린의 김영도다.

이처럼 각 악기 파트의 수석 단원에 있어 일반 단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인 단원이 더 많이 눈에 띈다. 일례로 독일 함부르크 필하모닉에는 최근 두 젊은 관악 주자가 수석으로 입단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임용된 유채연(24) 플루트 수석, 이현준(26) 트럼펫 수석이다. 세계적 거장 쾰트 나가노가 이끄는 이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조(31)가 이미 악장을 맡고

있었고 바이올린 소니아 김, 최정윤, 비올라 이상윤, 첼로 김민영, 바순 수석 김민주까지 총 8명의 한국 연주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 바이올리니스트 신가영(30)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제2 바이올린 차석으로 2년 전 선발돼 활동 중이다. 1743년 창단한 이 명문 오케스트라에는 제1 바이올린 조윤진, 제2 바이올린 이민아, 더블베이스 양지윤이 소속돼 있다. 또 450년 전통의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에는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운(33)부터 제2 바이올린 부악장 지상희, 제1 바이올린 양주영, 첼로 이소정·김민지와 지난해 입단한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까지 6명의 한국 연주자가 있다.

세계적인 명문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악장은 수년 전에 자리잡았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운은 베를린 슈타츠크펠레에서 2018년부터 종신 악장을 맡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윤(40)은 라디

오 프랑스 필 콘체르트하스 연주하고 있다. 최근 트렌트의 활약이다. 람펫 이현준, 트라의 오보에 람 한국 음악단 입단이 늘 트라도 다양한 (29)은 벨기에 케스트라에 명했다. 한국 트 서유민(26) 모닉 오케스트 플루티스트, 로베르트 슈로 지난해 음악 칼럼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의 적극성이 맞물 김호정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규민(베를린 슈타츠크펠레), 신가영(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박예람(벨기에 라모네), 이현준(함부르크 필)·한여진(북독일 엘프 필), [사진 금호문화재단, 스테이지원, 엘프 필 홈페이지]



모색

감사합니다

